

광주 '아파트 층수 제한' 연내 밀그림 마련

2040 도시기본계획 반영...연말 내 기본틀 마련키로 '아파트 30층·주상복합 40층' 용도·지역별 제도화 아파트 개발 계획수립 단계서 주거정책심의 의무화

광주시가 시민관심사로 떠오른 '아파트 층수 제한'과 관련, 도심 스카이라인(조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내 이에 대한 밀그림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건축물 40층 이하 층수 제한'에 뜻을 같이하고, 이같은 기준을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7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며, 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말 안에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의 밀그림으로 녹여낼 예정이다.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 어떤 목적이라도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던 이용섭 시장의 수 차례 공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아파트 난개발을 막고, 무등산 조망권으로 상징되는 도시경관과 바람길

을 살려 소위 '통경축'(통풍+경관)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파트 질벽'과 '다닥다닥 건립'에 따른 열섬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등산권, 도심권, 하천권을 두루 반영해 부산시 '뷰콘 관리' 방식과 용도별·지역별 높이 허용기준을 명확히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최대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정례적 심의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주택 개발과 공급을 수반하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때 사전협상 대상사업 등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광주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사진=광주시 제공)

있도록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성됐으나 택지개발만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해 상무지구 개발 이후 최근 10년 간 단 한 건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층수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심의 활동에 나서게 됐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연내에 층수기준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되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제한은 도시계획과 경관, 건축 등 각종 위원회에서 단지 특성과 표고, 경사도 등을 고려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한

국토주거택공사(LH), 광주도시공사 등 3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광주형 주거복지센터' 설치안이 통과됐다.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한층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LH는 광주전남본부 1층 갤러리를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인 마이홈센터를 통해 이전에 광주도시공사와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동구,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2곳 선정 '쾌거'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다복마을협동조합'과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돼 지원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차까지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 심사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기업의 성과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광주광역시 1차 심사 후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됐다.

서구,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광주 서구가 '지구의 날(4.22)' 51주년을 기념해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해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먼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지구의 날' 기념 SNS(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게시물에 지구를 배려하지 못한 나의 행동과 앞으로의 실천 다짐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중 22명을 선정해 마스크 22매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4월 22일 '지구의 날' 당일에는 오후 2시부터 유스퀘어 야외 광장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지구를 구하는 슬기로운 저탄소 생활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 '민원접수 패턴 분석' 서비스 질 바꾼다

광주 남구가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해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8만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청 민원접수 신청건은 38만31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27만5,286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무인민원 접수 5만9,280건(15.6%) 및 직접방문 2만4,132건(6.3%), 건축행정시스템 세무터 등 연계시스템에 의한 접수 2만1,620건(5.7%) 순으로 분석됐다.

민원 내용별 접수현황을 보면 주민등록표 등본교부 등 제증명명과 관련한 즉결민원이 33만1,096건(8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단순민원 4만 2,340건(11.1%)과 복합민원 6,628건(1.7%), 고충민원 254건(0.1%) 순이었다.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사업 설명회 개최

광주 북구는 22일 제3기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이하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 드론 등 신산업 업종 4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니클러스터는 북구의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결과물이 개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조달등록 및 ISO 인증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한다.

광산구 관광형 청년 일자리 창출 '첫발'

광주 광산구가 지역 청년들이 직접 관광 상품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광산구는 21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브라운컴퍼니,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남부대학교 등 광주권 대학교와 새로운 지역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인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푸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내 최대 여행/액티비티 플랫폼인 '엑스크루'를 보유한 ㈜브라운컴퍼니와 광주대학교, 남부대학교, 호남대학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게 될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푸드 프로젝트'는 관광을 주도하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인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광주의 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광주지하철 금남로4가역 'AI스마트팜' 실내농장 들어선다

광주도시철도-농촌진흥청 업무 협약...1089㎡ 규모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1일 광주시 서구 공사 본사에서 'AI스마트팜 조성 협약식'을 체결하고 금남로4가역에 1089㎡ 규모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광주도시철도 공사 제공)

광주지하철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재배시설이 들어선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1일 광주시 서구 공사 본사에서 'AI스마트팜 조성 협약식'을 체결하고 금남로

4가역에 1089㎡ 규모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AI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 공기, 온습도, 양분 등을 인

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날씨나 계절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금남로 4가역 내에 AI스마트팜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수행 경영체 선발, 사업비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진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AI스마트팜은 도시철도의 이색적인 활용모델이자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하철 공간의 다각적인 활용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이천일 국장은 "스마트팜 실내농장은 기후변화와 공기질 악화 등 기존의 농업이 마주한 각종 어려움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일 것"이라며 "AI스마트팜이 미래농업의 혁신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신민호 "전남 농업기반 붕괴 위기 청년농업인 육성해야"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최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된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 운영 방안 토론회'(이하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농도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전남은 고령 농업인의 급속한 증가로 농업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지 않으면 전남의 미래와 식량 안보는 불확실하다"며,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남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지역대학에 '농업사관학교 전공'을 개설해서 청년농업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이로진흥재단
Korea Philo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재탄생 슬로건입니다.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1년 3103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남국진(950731-1590519)
최 후 주 소 :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67, 204동 201호(양우내안에 리버시티 2차)

위 망 남국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4월 22일

공 고 인 : 남주희, 남주라.
주 소 :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350, 1층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4월 19일
공 고 기 간 : 2021. 4. 22 ~ 2021. 6. 22

전 환 공 고

본 나주배원에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4월 20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일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토농산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나주배원에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 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2일

나주배원에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도산길 155
대표이사 이 왕 건(인)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